

실직자의 정신건강과 강인성 및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

이 민 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강인성과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와 실직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실직 스트레스 부작용에 대한 이 두 변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밝히기 위해 시도되었다. 178명의 실직자 (남자 126명, 여자 52명)들이 자기 보고식 설문지인 강인성, 사회적 지지 및 간이 정신진단검사 (SCL-90-R)에 응답했다. 자료처리 결과, 강인성의 총점, 관여 및 통제 차원은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도전 차원은 그렇지 않았다. 다변량분석결과, 실직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강인성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 변인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일 변량분석 결과에서는 SCL-90-R의 거의 모든 척도에서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상호작용효과는 SCL-90-R의 일부 척도에서만 유의했다. 본 연구의 제한점, 함의 및 추후의 연구와 관련해서 연구 결과가 논의되었다.

최근의 경제위기와 함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업률은 실직자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직은 당사자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그가 속한 가족 구성원의 정신건강과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오경자, 1998).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에 대량 실업사태를 겪었던 서구 사회에서

는 오래 전부터 실직이 당사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공중건강 분야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다 (Rasky, Strongegger, & Freidl, 1996). 그러나, 최근 들어서야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실직이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나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나 논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 민 규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5번지 442-749 / Fax : 031-219-2195 / E-mail : lmk@madang.ajou.ac.kr

오래 전부터 서구의 많은 연구자들은 실직이 우울, 불안, 경미한 정신과적 문제를 증가시키고, 자기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켜 실직자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업자들의 정서적 반응 및 경험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결과들은 실직 후에 자존감의 저하, 불안감, 우울증, 짜증, 분노, 공격성, 심인성 장애 등이 급증함을 보고하고 있다 (Cobb & Kasl, 1977). 실직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Warr (1984)는 실직이 당사자의 감정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여러 가지 경험적인 연구들을 개관했다. 그가 개관한 연구들은 매우 다양한 표집을 사용해서 실직과 부정적인 감정정도, 행복감, 생활만족도, 긴장 수준 등의 관계를 조사한 것이었다. 이 결과들에 의하면, 실업자들은 취업자들에 비해 긴장감과 부정적 감정을 많이 경험하며 행복감이나 생활만족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은 실직의 결과로 수반될 수 있는 대표적인 심리적 장애이다. Finlay-Jones 와 Eckhardt(1981)는 실직이전에 우울증을 겪을 만한 뚜렷한 원인이 없는 실직상태의 젊은이들 중 43%가 실직 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타당도가 확인된 우울증 검사를 사용한 여러 연구들 (eg, Cobb & Kasl, 1977; Feather, 1982; Payne & Hartely, 1984)에서도 취업자들에 비해 실직자들이 우울증 수준이 현저하게 높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실직자들은 현재의 우울증 수준 뿐 아니라 장애에 대한 절망감도 심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Israeli (1935)는 실직자들과 대학생 및 정신과 환자들을 비교한 연구에서 실직자 집단이 대학생이나 정신과 환자들에 비해 장애에 대해서 현저하게 더 부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영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Warr 와 Payne (1982)은 "조사 전날 거의 하루종일 불쾌한 정서적 긴장상태를 경험"한 빈도가 취업한 남성은 6%, 여성은 9%인데 반해 실직 남성의 경우는 16%, 여성의 경우는 20%에 달해 실직자들이 취업자들에 비해 두 배 이상이나 됨을 확인했다. 실직은 우울감

이나 절망감 수준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자살과도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Hawton과 Rose (1986)의 조사에 의하면 실직집단에서의 자살기도 비율은 취업자들에 비해 약 15.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awton과 Rose (1986)의 연구만큼 극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캐나다에서 실시된 Bland, Steelsky, Orn 및 Newman (1988)의 연구결과에서도 취업자들의 자살기도 유병율은 2.5%인데 반해, 실직집단에서의 자살기도 유병율이 9.4%나 되어 실직이 자살기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개관한 바와 마찬가지로 실직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이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실직자 모두가 취업자에 비해 정신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며 실직의 부정적 영향이 모든 실직자들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실직과 정신건강 간에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중재변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른 스트레스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직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역시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에 의해서 대처방식이나 그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직 스트레스와 그 영향과 관련된 한 가지 연구 영역은 실직스트레스의 부작용에 대한 개인차 변인과 환경 요인의 완충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생활 스트레스 효과에 대해 잠재적으로 중요한 중재 변인이라고 확인된 여러 가지 변인들 중 비교적 많은 관심을 받아온 것이 성격 변인과 사회적 지지이다 (Ganellen & Blaney, 1984).

개인내적인 완충요인의 존재는 일찍이 스트레스 유발자에 대한 반응이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한 Selye (1956)와, "저항자원"의 개인차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 Antonovsky (1974) 같은 이론가들에 의해 제안된 바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 및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대한 지각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 중의 하나가 강인성이라고 알려져 있다 (Ganellen & Blaney, 1984; Kobasa, 1979). Kobasa와 그녀의 동료들 (Kobasa, 1979; Kobasa, Maddi, & Kahn, 1982)은 높은 수준의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한 뒤에도 건강한 상태로 남아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난 다

음 병에 걸린 사람들과 구분되는 성격적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들은 이러한 스트레스 저항적인 성격구조를 강인성이라고 명명했으며, 여기에는 관여, 통제 및 도전이라는 세 가지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

관여는 수동적으로 남아있기 보다는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경향성으로 표현되며 일반화된 목적 의식과 의미 충만성을 반영한다. 통제는 역경에 처했을 때 무력감을 느끼기보다는 생활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느끼는 것이다. 도전이란 생활사건을 깊어져야 할 험준운 부담으로 지각하기보다는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정상적인 생활의 일부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Kobasa (1979)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사건들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일단의 간부사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강인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밝히는 연구를 시도했다. 대상자의 절반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다음에 질병을 앓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그렇지 않았다. 인구학적 변인들은 이 두 집단간을 구분해 주지 못했으나 강인성 측정치는 이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스트레스 후에 질병에 걸리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강인성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강인성의 완충효과는 종단적 연구들 (Kobasa et al., 1982; Kobasa, Maddi, & Courington, 1981)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강인한 성격은 잠재적으로 해로운 생활스트레스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과정과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 개인내적 변인 못지 않게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지는 사회적 변인이 사회적 지지이다. 가족이나 동료 및 이웃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사건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Kessler, Price, & Wortman, 1985). 사회적 지지는 몇 가지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에게, 특히 그것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그들에게 관련된

사람들 (배우자, 가족, 친구들, 이웃들, 동료, 및 지역 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제공되는 지지의 정도로 특징 지워진다 (Johnson & Sarason, 1979; Lin, Simeone, Ensel, & Kuo, 1979).

Cobb (1976)은 사회적 지지가 개인으로 하여금 그들이 돌봄을 받고, 사랑과 존중을 받으며,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의사소통 망에 소속해 있으며, 호혜적인 관계에 있다고 믿도록 만들어주는 정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이들 세 가지 영역의 정보는 개인에게 존중감 지지, 정서적 지지, 및 지역사회 지지와 같은 특정한 유형의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Cassel (1973), Caplan (1974) 및 Mechanic (1974)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지지를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한 개인이 환경의 요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망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돕는다는 것을 관찰했다. 사회적 망에 관여하는 것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바에 대한 정보, 그들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 과제에 관한 도움, 적절한 행동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을 도울 수 있다.

Dean과 Lin (1977)은 사회적 지지가 두 가지 체계로 조직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 중 하나는 과제를 완수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적 체계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연대감을 유지시키는 것과 관련된 표현체계이다. Schaefer, Coyne 및 Lazarus (1981)는 친밀감과 안심을 시켜주는 정서적 지지, 직접적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제적 지지, 개인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관한 조언과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정보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의 세 가지 차원을 제안했다.

Cobb (1976)과 Schaefer 등 (1981)의 개념이 비교적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단일한 개념은 없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경우 든, 사회적 지지가 생활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의 중재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Brown & Harris, 1978).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연구결과들 (e.

g. Dooley & Catalano, 1988; Kessler, Turner, & House, 1988)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실직으로 인한 정신건강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밝혀주었다. 사회적 지지의 가장 통상적인 요소는 그것을 받는 개인의 자긍심을 증진시켜주고,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며, 소속감을 갖게 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Kahn & Antonucci, 1981). Vinokur와 Caplan (1987)은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에게 다양한 차원에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종단적 연구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들은 구직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와 기대가 실직자들의 구직동기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실직기간에 받는 사회적 지지의 또 다른 효과는 실직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Atkinson, Liem & Liem, 1986). 여러 가지 연구들은 구직을 하려는 동기가 강하면서도 구직에 실패한 사람들은 구직동기가 약한 사람들에 비해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Feather & Davonport, 1981; Vinokur & Caplan, 1987).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Vinokur & Caplan, 1987)

지금까지 실직경험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직 후 정신건강 문제의 유발정도에서 다양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개관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성격특성이나 사회적 지지 정도가 생활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약화간의 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강인성과 같은 성격적 특성의 완충효과를 독립적으로 확인했던 연구들은 많다 (Ganellen & Blaney, 1984). 그러나 성격특성이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해서 실직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에 경감할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맥락에서 성격특성인 강인성과 사회적 지지가 실직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들 변인의 상대적 중요성과 상호작용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방 법

대 상

연구대상은 실직을 실직 상태에 있는 자들(미취업자 5명 포함)로 조사당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총 178명 (남자 126명, 여자 52명)이었다. 이들은 구직을 위해 경기도 인력은행을 방문한 자들이며, 평균연령은 27.79세 (범위 18-62세)이며, 이 중 124명 (69.67%)은 미혼자이고, 54명 (30.34%)는 기혼자였다. 부양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69명으로 전체 39.76%에 해당했다. 평균 교육수준은 13.88년 (범위: 9-17년)이었으며 평균 실직기간은 6.06개월 (범위: 2-56개월)이었다.

도 구

PVS-II (Personal View Survey-II). 강인성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Personal View Survey-II (Maddi, 1987)를 번안해서 사용했다. 이 검사는 정적 및 부적으로 기술된 문항들을 적절하게 배합하고 부정적인 감정상태나 신경증적인 상태를 암시하는 문항을 배제하는 등, 강인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기존의 검사들에 대한 비판을 교정해서 개발되었다고 해서 삼세대 강인성 척도라고 하기도 한다 (Maddi, 1987). 총 5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이 검사는 관여(Commitment), 통제(Control) 및 도전(Challenge)이라는 세 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관여척도(16문항)는 자신 및 자신이 행하는 일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믿는 문항으로 주어진 상황에 얼마나 열중할 수 있는지를 재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통제척도 (17문항)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전 척도 (17문항)는 변화를 안전감에 대한 위협으로 보기보다는 기회와 자기 성장의 자극으로 보는 내용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검사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에서 "매우 그렇다(3)"까지의 4점 Likert 식의 척도 상에 평정하

게 되어 있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검사 $\alpha = .80$, 관여척도 $\alpha = .70$, 통제 $\alpha = .65$ 및 도전 척도 $\alpha = .40$ 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척도는 실직 후 가족들, 친구들 및 동료나 선후배들로부터 도움과 격려를 어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를 7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했으며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자료를 사용한 내적 합치도는 $\alpha = .77$ 로 나타났다.

SCL-90-R.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는 한국판 SCL-90-R (Symptom Check List-90-Revision: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을 사용했다. 이 검사는 Derogatis (1977)에 의해서 개발된 자기보고식 다차원 증상목록을 국내에서 표준화한 것이다. 이 검사는 총 9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화, 강박증, 대인관계 예민성, 우울증,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및 정신증 등 9개의 기본 척도와 GSI (Global Symptom Index), PSDI (Positive Symptom Distress Index), 및 PST (Positive Symptom Total) 등 3개의 전반적 지표로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게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지난 7일 동안 체험한 증상 정도에 따라 '전혀 없음'에서부터 '아주 심하다'까지 5단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절 차

연구대상자들에게 설문지의 내용과 설문 결과는 익

명으로 처리됨을 설명해 준 다음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자들에 한해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게 했다. 설문지를 완성하는 데는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자료처리에는 SPSS 8.0 for Windows를 사용했다.

결 과

성별 측정치 결과의 비교

본 연구에 참여한 실직자들의 성별에 따른 강인성 성격검사, 사회적 지지 정도 및 SCL-90-R의 검사점수 평균은 표 1과 같다.

강인성 검사 점수의 성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강인성 검사의 총점과 세 개의 하위척도인 관여, 통제 및 도전 척도 점수 (표 1)를 종속변인으로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bda=.988, $F(4, 173)=0.788$, $p=.50$. 후속의 단일변량분석 결과 역시, 총점과 하위 척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별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실직자들의 정신건강 상에서 성별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SCL-90-R의 기본 척도 9개와 4개의 부가척도 점수를 종속측정치로 한 다변량 분석결과 (표 2) 역시, 성별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Wilks' lambda=.950, $F(12, 165)=0.794$, $p=.66$. 단일변량분석 결과 또한, 어떤 척도의 점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별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표 1. 성별 강인성 및 사회적 지지 점수의 비교

성별	강인성 검사				사회적 지지
	관여	통제	도전	총점	
남자	30.51(5.49)	33.07(5.29)	28.06(4.31)	91.63(12.60)	8.70(4.08)
여자	31.50(5.38)	34.25(5.56)	28.15(4.88)	93.54(11.81)	8.79(3.78)
전체 평균	30.80(5.46)	33.42(5.12)	27.98(4.28)	92.19(12.37)	8.72(3.98)
전체 중앙치	32.00	34.00	28.00	92.00	9.00

표 2. 성별 SCL-90-R 척도점수의 비교

SCL	신체화	강박증	대인관계	우울증	불안	적대감	공포	편집증	정신증	PST	GSI	PSDI
남자	8.19	10.64	7.50	12.03	7.51	4.25	2.81	4.03	6.20	44.97	68.92	1.43
여자	7.59	10.52	7.68	12.43	7.42	4.08	2.02	3.88	5.45	43.53	66.03	1.41
전 체	7.99	10.61	7.55	12.15	7.48	4.20	2.56	3.98	5.97	44.53	68.03	1.42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실직자들의 강인성 성격, 사회적 지지 및 정신건강 상태가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자료는 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되었다.

강인성과 사회적 지지

강인성 검사의 총점 및 하위 척도 점수와 사회적 지지 점수간의 계수를 계산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도전 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관여척도와 통제 척도 및 강인성 총점과 사회적 지지 정도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강인성의 관여측면이나 통제적 특성은 사회적 지지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반면 도전성은 그렇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강인성의 도전 척도 점수는 강인성의 총점과는 높은 상관을 보이지만($r=.70$), 나머지 하위 척도인 관여($r=.41$)와 통제($r=.40$) 척도 점수와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강인성의 하위 요소들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Kobasa 등 (1982)의 의견을 지지한다. 뿐만 아

니라, 이는 실직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강인성 성격의 주효과 및 다른 변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함에 있어서 각각의 하위 척도점수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인성과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강인성검사의 총점 뿐 아니라 하위척도 점수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강인성과 사회적 지지 및 정신건강

본 연구의 주목적은 실직 스트레스의 완충변인으로서 성격특성의 일종인 강인성 및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두 가지 변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신건강에 미치는 상대적인 효과와 상호작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강인성 및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 지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다음 강인성 수준과 사회적 지지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SCL-90-R의 척도점수를 종속측정치로 한 2 x 2 다변량 분석을 실시했다.

표 3. 강인성 검사 점수와 사회적 지지 점수간의 상관 계수

검 사	강인성 검사			사회적 지지	
	총점	관여	통제	도전	
강인성 검사 총점	1.00				
관여	.88**	1.00			
통제	.87**	.70**	1.00		
도전	.70**	.41**	.40**	1.00	
사회적지지	.31**	.31**	.34**	.08	1.00

** $p < .001$.

표 4. 강인성 및 사회적 지지와 SCL-90-R 척도 점수 간의 상관관계

SCL	신체화	강박증	대인관계	우울증	불안	적대감	공포	편집증	정신증	PST	GSI	PSDI
강인성(관여)	-.36	-.41	-.45	-.45	-.44	-.45	-.45	-.48	-.58	-.47	-.50	-.40
(통제)	-.30	-.34	-.43	-.36	-.36	-.41	-.45	-.36	-.45	-.40	-.42	-.31
(도전)	-.25	-.30	-.31	-.36	-.33	-.28	-.22	-.28	-.32	-.36	-.34	-.22
(총점)	-.37	-.42	-.49	-.48	-.46	-.47	-.46	-.46	-.55	-.50	-.51	-.38
사회적 지지	-.21	-.25	-.27	-.29	-.28	-.29	-.19	-.28	-.28	-.26	-.29	-.26

상관분석

강인성 성격과 사회적 지지 및 SCL-90-R의 각 척도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 (표 4), 강인성의 총점, 세 가지 하위척도인 관여, 통제 및 도전 척도 모두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 척도의 점수 역시 SCL-90-R의 척도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 관계($p<.001$)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강인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함을 시사한다.

다변량분석

먼저 전반적인 강인성 수준과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와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한 다변량 분석에서는 Funk (1992)의 추천에 따라 강인성 척도의 하위척도 세 가지 모두에서 중앙치 이상인 집단과 중앙치 미만인 집단으로 구분했다. 관여, 통제 및 도전 척도의 중앙치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32, 34, 28이었다.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집단 역시 중앙치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했으며 척도의 중앙치는 9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총 178명 중 정신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강인성 수준과 사회적 지지 수준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한 다변량 분석에 포함된 자료는 121명으로 표집 인원의 67.98%에 해당했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다변량분석 결과, 강인성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Wilks' lambda=.59, $F(12, 106)=6.13, p<.001$. 단일 변량분석 결과에서도 SCL-90-R의 모든 척도에 있어서 강인성 변인의 주효과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변량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Wilks' lambda=0.89, $F(12, 106)=1.00, p>.05$. 그러나 후속의 단일변량 분석 결과 (표 6)에서는 SCL-90-R의 강박증($p=.009$), 대인관계 예민성($p=.019$), 우울증($p=.004$), 불안($p=.023$), 적대감($p=.019$), 공포($p=.041$), 편집증($p=.025$), 정신증($p=.011$) 등 8개의 하위척도와 두가지의 전반적 지표인 PST($p=.004$)와 GSI($p=.007$) 등 거의 모든 척도에서 사회적 지지 변인의 주효과가 확인되었다.

다변량분석 결과에서, 전반적 강인성과 사회적 지지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는 경향성을 보였다, Wilks' lambda=0.84, $F(12, 106)=1.63, p=.093$. 단일변량분석 결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종속측정치는 유일하게 대인관계 예민성 척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p=.039$). 표 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강인성 수준이 높은 집단($M=5.30$)은 그렇지 않은 집단($M=9.92$)에 비해 대인관계 예민성 점수가 현저

표 5. 전반적 강인성과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 과	Wilks' lambda	$F(12, 108)$	p
강인성	0.59	6.13	.000
사회적지지	0.89	1.00	.451
강인성 x 사회적지지	0.84	1.63	.093

표 6. 강인성과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단일변량분석 결과 (F 값)

종속측정치/ 효과	강인성 주효과	사회적 지지 주효과	상호작용
신체화	18.63***	3.71	.24
강박증	19.22***	7.02**	.05
대인관계 예민성	18.63***	5.62*	4.34*
우울증	25.65***	8.61**	.42
불안	34.24***	5.34*	1.36
적대감	37.42***	5.65*	1.48
공포	38.15***	4.28*	2.22
편집증	30.16***	5.18*	1.54
정신증	45.60***	6.60*	3.51
PST	44.52***	8.66**	.05
GSI	38.16***	7.62**	1.35
PSDI	16.66***	3.46	1.82

*** $p < .001$. ** $p < .01$. * $p < .05$.

하게 낮고 특히 강인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대인관계 예민성 척도 점수의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인성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는 사회적 지지가 적은 집단에서 현저하게 대인관계 예민성을 심하게 느낀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강인성의 세 가지 차원에 따라 다르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강인성의 세 가지 하위척도 각각의 중앙치 점수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해서 다변량분석을 시도했다.

강인성의 관여차원과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SCL-90-R의 척도점수들을 종속측정치로 다변량 분석한 결과, 강인성(관여)의 주효과, Wilks' lambda=0.695, $F(12, 163)=5.95$, $p < .001$, 만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사회적지지, Wilks' lambda=0.909, $F(12,$

163)=1.36, $p > .05$, 및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는, Wilks' lambda=0.914, $F(12, 163)=1.28$, $p > .05$,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일변량분석에서는 앞서 제시한 전반적인 강인성 수준에 따른 분석과 마찬가지로 SCL-90-R의 모든 척도에서 관여 변인의 주효과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으며 사회적 지지 변인의 경우 역시 신체화 및 공포 척도 점수를 제외한 주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는 대인관계 예민성 척도($p=.02$)와 정신증 척도($p=.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강인성의 통제차원 점수를 근거로 한 다변량 분석에서도 강인성(통제) 변인의 주효과만, Wilks' lambda=0.787, $F(12, 163)=5.95$, $p < .001$, 유의미했고, 사회적 지지 및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단일변량분석 결과에서도, 전반적인 강인성 수준과 관여척도 점수 수준에 따른 분석결과와 유사

표 7. 강인성 수준과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민감성 점수의 비교

강인성(전반)/ 사회적 지지	상	하	전체
상위집단	4.67(3.85)	4.93(2.60)	4.74(3.53)
하위집단	8.50(5.19)	12.65(5.94)	10.42(5.89)
전체	6.65(4.73)	9.24(5.76)	7.63(5.28)

했다. 즉 SCL-90-R의 모든 척도에서 강인성(통제) 변인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사회적 지지 변인은 신체화, 공포, 두 가지 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척도에서 주효과가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했다.

마지막으로 강인성의 세 번째 차원인 도전척도 점수를 근거로 한 다변량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강인성(도전) 변인의 주효과가, Wilks' lambda=0.841, $F(12, 163)=2.574$, $p < .01$ 가 유의미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 Wilks' lambda=0.890, $F(12, 163)=1.687$, $p=.07$, 및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는, Wilks' lambda=0.887, $F(12, 163)=1.723$, $p=.06$, 경향성을 보였다. 단 일변량분석 결과에서도, SCL-90-R의 모든 척도에서 강인성(통제) 변인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사회적 지지 변인은 신체화, 공포 두 가지 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척도에서 주효과가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했다. 그리고 대인관계 예민성 ($p < .01$), 불안, 적대감 ($p < .01$), 편집증 및 GSI 척도 점수 ($p < .05$)에서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생활 스트레스의 부작용을 완화시킨다고 알려진 성격특성의 일종인 강인성과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 및 이들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과 상호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강인성 검사 결과와 사회적 지지 점수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총점과 관여 및 통제차원은 각각 .31, .31, 및 .34로 모두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강인성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 지지도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강인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사회적 지원세력을 구축하는 데 더 적극적이라는 Maddi 등 (198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전차원은 $r=.08$ 로 사회적 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지

지와 강인성의 모든 차원들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Ganellen 과 Blaney (198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Kobasa 등 (1981)은 강인성의 세 가지 차원이 매우 강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어서 강인성의 세 가지 하위 차원의 점수를 합산해서 총점으로 계산해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강인성 하위척도 간의 상호상관관계에서도 관여와 통제 차원은 $r=.70$ 인 반면, 도전과 통제간에는 $r=.41$, 도전과 관여간에는 $r=.40$ 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강인성의 하위차원을 별도로 다룰 필요성을 암시해주는 것이다.

강인성 및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강인성의 총점 및 하위척도 모두가 SCL-90-R의 하위척도 전부와 $r=.22 \sim .58$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Hopkins 증상척도와 MMPI를 사용해 강인성이 정신건강 상태와 부적인 상관을 갖고 있다는 Maddi 와 Khoshaba(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 척도 점수 역시 SCL-90-R의 하위척도 전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실직으로 인한 정신건강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는 Dooley와 Catalano (1988)와, Kessler, Turner 및 House (1988)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변량분석 결과와 단일변량 분석 결과, 모든 정신건강 지표에 대한 강인성 변인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에서 가정했던 강인성 수준에 따라 실직자의 정신건강 상태가 다를 것이라는 예언을 지지했다. 또한 이는 Fryer (1988)등이 강인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실직의 스트레스의 적응에 중요한 변인일 수 있다는 제안과 강인성이 생활스트레스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Kobasa 등 (1982)의 선행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다변량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단일변량 분석결과에서는 SCL-90-R의 12개의 척도중 11개의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본 연구에서 예언했던 사

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실직자의 정신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두 번째 예언도 지지해 주었다.

성격변인인 강인성이 환경적 변인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변량 분석결과, 전반적인 강인성 수준과 사회적 지지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단일변량분석에서는 SCL-90-R의 대인관계예민성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강인성의 하위척도 점수를 근거로 집단을 구분한 각각의 다변량분석 결과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강인성 (관여)간의 상호작용은 대인관계 예민성과 정신증 척도에서, 강인성 (도전)과의 상호작용은, 대인관계 예민성, 불안, 적대감 및 편집증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따라서 강인성과 사회적 지지가 상호작용해서 상승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세 번째 예언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Kobasa 등 (1981)은 강인성이 세 가지 차원이 매우 강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세 가지 차원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강인성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와의 상관관계 분석 및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의 상호작용 효과의 분석에 따르면 강인성의 세 가지 요소들이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하는 정도가 각기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Kobasa 등 (1981)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던 Ganellen과 Blaney (1984)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스트레스의 효과에 대한 강인성의 주효과 및 사회적 지지 등의 다른 변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때는 강인성의 각 차원을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강인성과 사회적 지지간에 관찰된 높은 상관관계로는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변인이 공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들이 스트레스의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로 미루어 환경변인인 사회적 지지보다는 성격특성인 강인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스트레스 완충기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와 강인성의 증재효과에 대한 정보는 실직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임상가의 개입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중 하나는 연구대상이 취업을 위해 지역 인력은행을 찾는 사람들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비교적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어서 실직자들의 대표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또 다른 문제점은 자료 수집과정에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했고 특히 사회적지지 척도의 경우 문항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실직자의 정신건강과 강인성 및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동시에 조사하는 횡단적 연구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회적지지 및 강인성과 실직자들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인과적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면접법 등 자기보고식 질문지법 이외의 자료수집방법과 종단적 연구방법을 사용해서 본 연구의 결과가 반복검증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 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오경자 (1998). 실직이 개인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추계 심포지움 자료집*, 67-95.
- Antonovsky, A. (1974).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problems in the study of resistance resources and stressful life events. In B.S. Dohrenwend & B.P. Dohrenwend (Eds.), *Stressful life events: Their nature and effects* (pp.245-258). New York: Wiley
- Atkinson, T., Liem, R., & Liem, J. (1986). The social cost of unemployment: Implications for social suppor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17-27.

- Bland, R.C., Steelsky, G., Orn, H., & Newman, S.C. (1988). Psychiatric disorders and unemployment in Edmonton.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77, 72-80.
- Brown, G. W., & Harris, T. (1978). *Social origins of depression*, New York: Free Press.
- Caplan, G. (1974). *Support system and community mental health*. New York: Behavioral Publications.
- Cassel, J. (1973). The relation of urban environment to health: Implications for prevention. *Mount Sinai Journal of Medicine*, 40, 539-550.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8, 300-314.
- Cobb, S., & Kasl, S. V. (1977). *Termination: The consequences of job loss*. DHEW(NIOSH) publication no.77-224. Cincinnati: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Dean, A., & Lin, N. (1977). The stress-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Problems and prospects for systematic investigatio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5, 403-417.
- Derogatis L.R. (1977). *SCL-90 (Revised) Manual I*. Clinical Psychometrics Research Unit.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Dooley, D., & Catalano, R. (1988). Recent research on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unemploy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44 (4), 1-12.
- Feather, N. T. (1982). Unemployment and its psychological correlates: A study of depressive symptoms, self-esteem, protestant ethic values, attributional style, and apathy.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34, 309-323.
- Feather, N. T., & Davenport, P.R. (1981). Unemployment and depressive affect. A motivational and attributio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422-436.
- Finlay-Jones, R. A., & Eckhardt, B. (1981). Psychiatric disorder among the young unemployed.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15, 265-270.
- Fryer, D. (1988). The experience of unemployment in social context. In S. Fisher and J. Reason (Eds.) *Handbook of Life Stress, Cognition and Health*. John Wiley & Sons Ltd.
- Funk, S.C. (1992). Hardiness: a review of theory and research. *Health Psychology*, 11, 335-345.
- Ganellen, R.J. & Blaney, P.H. (1984). Hardiness and social support as moderators of the effects of life 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 156-163.
- Hawton, K., & Rose, N. (1986). Unemployment and attempted suicide among men in Oxford. *Health Trends*, 18, 29-32.
- Israeli, N.(1935). Distress in the outlook of Lancashire and Scottish unemployed.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9, 67-69.
- Johnson, J. H., & Sarason, I. G. (1979). Recent developments in research on life stress. In V. Hamilton & D. M. Warburton (Eds.), *Human stress and cognition: An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pp. 205-233). London: Wiley.
- Kahn, R. L., & Antonucci, T. (1981).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In P.B. Baltes and O. Brim(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3, pp. 253-286). New York: Academic Press.
- Kessler, R. C., Price, R. H., & Wortman, C. B. (1985). Social factors in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 531-572.
- Kessler, R.C., Turner, B., & House, J.S. (1988). Effects of unemployment on health in a community survey: Main, modifying and mediating effects. *Journal of Social Issues*, 44 (4),

- 69-86.
- Kobasa, S.C. (1979). Stressful life events, personality, and health: An inquiry into hard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11.
- Kobasa, S. C., Maddi, S. R., & Courington, S. (1981). Personality and constitution as mediators in the stress-illness relationship.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68-378.
- Kobasa, S. C., Maddi, S. R., & Kahn, S. (1982). Hardiness and health: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68-177.
- Lin, N., Simeone, S. R., Insel, W. M., & Kuo, W. (1979). Social support, stressful life events, and illness: A model and an empirical tes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0*, 108-119.
- Maddi, S.R. (1987). Hardness training at Bell Telephone. In I. Opatz (Ed.), *Health promotion evaluation* (pp.121-158). Stephens Point, WI: Natural Wellness
- Maddi, S.R., & Khoshaba, D.M.(1994). Hardines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3* (2), 265-274.
- Mechanic, D. (1974). Social structure and personal adaptation: Some neglected dimensions. In G. Coelho, D. Hamburg & J. Adams (Eds.), *Coping and adaptation*(pp. 32-44). New York: Basic Books.
- Payne, R.L., & Hartely, J. (1984). Financial situation, health, personal attributes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experience amongst unemployed me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0*, 31-47.
- Rasky, E., & Stronegger, W., & Freidl, W. (1996). Differences in selecte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of adolescents employed and in school in rural regions of Styria (Austria). *Sozial und Praventivmedizin, 41* (6), 348-358
- Schaefer, C., Coyne, J. C., & Lazarus, R. S. (1981). The health-relate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381-406.
- Selye, H. (1956).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Graw-Hill.
- Vinokur, A., & Caplan, R.D. (1987). Attitudes and social support: Determinants of job-seeking behavior and well-being among the unemployed.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7*, 1007-1024.
- Warr, P. B. (1983). Work, jobs, and unemployment. *Bulletin of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36*, 305-311.
- Warr, P. B. (1984). Reported behavior changes after job loss.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23*, 271-275.
- Warr, P. B., & Payne, R.L. (1982). Experiences of strain and pleasure among British adult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6*, 1691-1697.
- 원고접수일 1999. 10. 12
수정원고접수일 2000. 2. 14
게재결정일 2000. 3. 13 ■

Hardiness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Mental Health in the Unemployed

Min-Kyou, Lee

Ajou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the hardiness and social support, and evaluated their relative importance in reducing the effect of job loss stress on the mental health. One hundred seventy eight unemployed subjects (126 male, 52 female) completed self-report measures of hardiness(PVI-II), social support, and SCL-90-R. Total score, commitment and control dimensions of hardines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ocial support, whereas the challenge dimension of hardiness was not. The results of MANOVA indicated the main effect for hardiness of the unemployed on their mental health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ither the main effect for social support nor the interaction of social support and hardiness were significant. In the univariate analysis, however, social support did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most subscales of SCL-90-R. Significant effects in the univariate analysis were also found for the interaction of hardiness and social support on the several subscales of SCL-90-R. Finally, implications of the results, recommendations for further research,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